

 보건복지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9. 7. / (총 1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담 당 자	김 동 욱 김 원		044-202-7740 044-202-774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 담 당 자	유 주 헌 고 서 기		044-202-2790 044-202-279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 사업장과 건설·제조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거리 두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선제적인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8월 23일(일)부터 9월 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74.8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08명으로 이전 2주간(8.9.~8.22.)의 136.7명에 비해 71.3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66.8명이 발생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1.3%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9일 ~ 8월 22일	8월 23일 ~ 9월 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62.1명	274.8명
수도권	136.7명	208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1명	11.5명
집단 발생 <sup>1)</sup> (신규 기준)	49건	5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0% (292/2440)	21.3% (852/4008)
방역망 내 관리 비율 <sup>2)</sup>	80% 미만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다단계/투자설명회, 직장 등 다양한 집단 및 규모로 확대되면서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 다만,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8.30.~9.5.)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한 주간의 33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환자 발생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선이 유지되며 발생 규모도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은 1~2주의 시차를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2단계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20% 내외로 지속 확인되고 있어 지속적인 거리두기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소 추세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여러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강조하고,
  -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한 주만 더 강력하게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2 코로나19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이후 공원 야외공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및 시 직영공원 25개소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9월 4일부터 경의선 숲길 연남동 일대 야간 공원 관리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잔디밭 출입금지, 집중이용 가능 시설 차단, 야간 합동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이용객이 밀집되며 취식이 가능한 정자, 쉼터 등의 공간과 야외 운동기구 밀집 공간을 임시 폐쇄하고, 매점 등의 시설은 1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야간에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오늘(9.7.월)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가족공원 및 사설 장사시설 42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9.30 ~ 10.4) 성묘 방역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 기간(9.30 ~ 10.4) 전 시설을 폐쇄하고 성묘객의 분산을 위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를 적극 권고한다.

- 한편, 인천시는 사설 장사시설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준수와 “미리 성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미리 성묘(9.12~29), 온라인 성묘(신청 9.7~18 / 운영 9.28~10.11)

- 어제(9.6.일) 종교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한 10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다른 사람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킨다’라는 응답이 65%로 응답되었다.
-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3 민간 사업장 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민간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장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배포(‘20.2월~)하고, 노동자가 밀집하는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 노동자 밀집도가 높거나, 작업 특성상 밀폐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으로 전화상담실(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전자제품조립업, IT관련업, 가전제품수리업 등

○ 특히, 지난 8월 종교시설, 집회 등에서의 감염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콜센터·육가공업체 등 감염 취약사업장 7,850개소에 대해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였으며, 이 중 343개소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하였다.

\* 주요 점검사항: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적극 활용, 점심시간 분산 지도, 출퇴근시 발열 유무 확인,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간 간격(최소 1m) 유지, 집합행사 금지 등

-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출·퇴근 시 체온 측정 등은 연초 대비 개선되었으나,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미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한편, 재택근무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에 사업장 내 감염이 지역사회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주(9.7.~9.25.)간 방역실태 집중 점검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방역취약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9월 6일 발표한 '추석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석 연휴 간 방역 사각 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어업, 육가공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제공하여 연휴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4 혈장치료제 개발 관련 혈장 확보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는 올해까지 임상 2상 완료를 목표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 6개 기관에서 임상 2상 진행 중(8.20.~)

○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완치자분들의 충분한 혈장 확보가 필요하며, 9월 4일 기준으로 2,634명이 혈장 공여에 동의하시고 1,936명이 채혈을 완료하였다.

\* 혈장 공여자 수 : (6.5) 18명 → (7.1) 240명 → (8.3) 574명 → (9.4) 2,634명

○ 정부는 공여자들이 보다 쉽게 혈장을 공여할 수 있도록 혈장 모집 장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는 4개 의료기관\*뿐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 계명대 동산병원, 고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 오늘(9.7.월)부터는 수도권·강원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경상권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 공여가 가능해진다. 헌혈의 집에서 혈장 공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십자 콜센터(080-260-8232)를 통해 혈장 채혈이 가능한 인근 헌혈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적십자사 홈페이지(plasma.gccorp.com)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 (1차, 8.24.~) 수도권·강원 21개 헌혈의 집 / (2차, 9.7.~) 충청·전라·경상 25개 헌혈의 집

○ 정부는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전액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 “공여해 주신 혈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혈장 공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6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5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15명이며, 이 중 29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착용하고 있다.
- 9월 6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 6722개소, ▲실내체육시설 4,134개소 등 35개 분야 총 6만 26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0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9반, 71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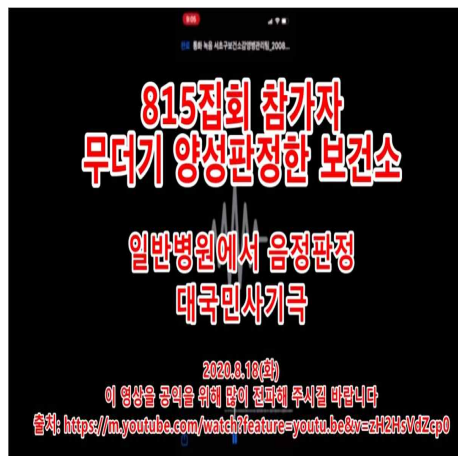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주요 사례 >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오전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를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